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19년 3월 제229호 http://cnmhs.net7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형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82-5658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제17대 총동문회 회장에 박대용 동문(16회) 취임"

제34회 정기총회 오페라웨딩 개최, 예산안 의결 및 신구회장 이 · 취임식

제34회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3월 22일 오후 7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에서 동문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 개회식에서 회의 성원 보고와 개회선언,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내빈소개 및 상견례가 있었다. 이어 임세환 총동문회장은 동문회를 위해 수고한 최경일 동문(9회. 명일전기 대표이사)과 전종현 전 총동문회장(12회. 세진크랭크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김교신 동문(14회. 세아인더스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안영호 동문(24회. 영신F&S 대표)과 박종호 동문(24회. 혜성싸이언스 대표)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임세환 총동문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4대 총동문회장에 이어 재작년 갑작스런 유고로 회장을 다시 맡아 참으로 걱정스러웠는데, 모든 동문들이 잘 협조해주어 무사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후임 회장들이 고생하지 않고 동문회를 운영하도록 동문회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모두 더욱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황의만 모교 교장은 축사에서 "입학식 날 많은 선배들이 참석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고 충기 동문들의 위상을 느꼈다"며 "두 차례나 회장을 맡아 수고해준 임세환 회장에게 감사드리고, 신임 박대용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임세환 회장이 주재한 2부 보고 및 의안 심의에서는 그동안의 총동문회 활동사항 보고에 이어 부의의안으로 제1호 의안 '2018년도 결산 보고 심의 건' 제2호 의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건과 제3호 의안 회칙 개정의 건(현행 임원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통과시켰다.

제34회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200여 명의 동문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오페라웨딩에서 개최됐다.

이어 김월배 자문위원장(8회)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여 제4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을 상정, 박대용 동문(16회)이 단일 추천되어 제17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감사에는 이재범(8회) 정성태(13회) 이종업(14회) 동문이 선출됐다. 임세환 회장은 총동문회기를 김월배 임시의장을 통해 박대용 신임 회장에게 전달했다. 박대용 회장은 총동문회기를 힘차게 흔들며 충기인의 단합을 주문했다.

박대용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총동문회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동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역대 회장들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총동문회의 지표인 참여하는 동문회, 협력하는 동문회, 모교 돕는 동문회를 상기하여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총동문회가 되자"고 역설했다.

동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신임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그동안 어렵게 동문회를 이끌어온 임세환 전임 회장에게 동문들의 정을 담아 감사패를, 임 회장 부부에게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임세환 전임 회장은 신임 박대용 회장 부부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선물을 전했다.

정기총회는 전, 현 총동문회장 부부와 총동문회 고문들이 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건배를 한 다음, 참석한 동문들 모두의 우렁찬 교가제창으로 마무리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제9회 충기인 한마음등반대회 안내

모교 총동문회 3만3천 동문의 단합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제9회 충기인 한마음 등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5월 18일(토) 오전 9시
* 장 소 : 경북 문경새재
* 접 수 : 단체 및 개별 연락 5월 10일까지 접수
* 집결지 : 제1집결지 = 모교 운동장 (오전 8시30분)
  제2집결지 = 경북 문경새재 제1주차장
  관문슈퍼 앞 (오전 10시 30분)
* 등반 코스 : 제1코스 (제1관문~제3관문, 3시간 소요)
  제2코스 (제1관문~촬영장, 2시간 소요)
* 연락처 : 총동문회사무국 042-282-5658.
  김정규 충기산악회 총무(35회. ☎010-9240-3557)
* 주 관 : 충기산악회
* 주 최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 대 용

"총동문회는 동문들 마음의 고향, 신뢰 바탕으로 계속 이어져야"

박대용 17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충남기계공고 17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16회 박대용 인사드립니다. 항상 동문 사랑의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남기계공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교 황의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교 선생님들과 내외귀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부족한 사람임에도 총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비록 부족한 능력이지만 총동문회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동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역대 회장님들이 이룩하신 훌륭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4대 총동문회장에 이어 두 번씩이나 총동문회장을 맡아 지난 2년 동안 제16대 총동문회를 이끌어주신 임세환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세환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우리 모교는 올해 개교 56주년을 맞아 54회 졸업생 426명을 졸업시켜 총동문수는 3만 3천2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교는 특성화고교로서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많이 배출되어 빛나는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성취가 있기까지 모교의 선생님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기여를 해 주신 동문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박대용 신임 총동문회장이 충기 동문들에게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우리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충기인들이 그려온 무늬는 충기인의 문화이며 충기인의 역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충기인들이 그려준 방향대로 동문회를 그려가 보겠습니다.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고 합니다. 충기인들이 그려준 무늬를 따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동문회의 지표인 참여하는 동문회, 협력하는 동문회, 모교 돕는 동문회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참여와 화합이 우선입니다. 저희 17대 총동문회는 모든 동문들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부지런히 동문들을 찾아가고 말씀을 경청하며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졸업회수별, 지역별, 직능별 동문회에 적극 참석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총동문회가 되겠습니다.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총동문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총동문회에 협력하는 동문들이 지금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철저히 잘 관리해서 다음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우선이며 책임감이 충만해야합니다.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마음의 고향인 만큼 미래에도 계속 이어져 동문들의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총동문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상생발전에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충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총동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총동문회장으로 추대해 준 우리 16회 동기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동문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임세환 총동문회장님과 임원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충남기계공고 17대 총동문회장

박 대 용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기 사랑하세" 제창

34회 정기총회 낙수…인천, 창원 등서 참석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대용 회장의 출범과 그동안 수고한 임세환 전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후배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박대용 회장의 부인 주애심 여사와 장남 박정범군(경찰공무원)이 전북 장수에서 올라와 회장 취임을 축하했고, 멀리 인천동문회에서 김창국 회장(18회)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혼자 참석해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경남 창원동문회 김형찬 사무국장(24회)은 "박대용 회장님" "충성"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이날 16회 동문들은 윤석길16회 동문회장을 필두로 4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염을 토했고, 올해 11월 모교 졸업30주년행사를 치르는 24회 동문회에서도 대거 참석했다. 30회 동문회는 경석현 회장 등 13명이 정기모임을 미루고 참석하여 선배들의 칭찬을 받았다. 이날 마지막으로 건배사에 나선 이장수 자문위원은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로 천안함 임재엽 중사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순직한 날로, 애국가 4절의 마지막 구절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를 생각해 건배사로 제의한다"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기사랑하세"를 제창했다.

주애심 여사(좌)와 장화순 여사(우)

"친구들이 힘 보태주니 용기가 난다"

16회동문회 박대용 총동문회장 추대 모임

"고맙다 친구야, 바쁜데 회장을 맡아줘서, 우리 함께 일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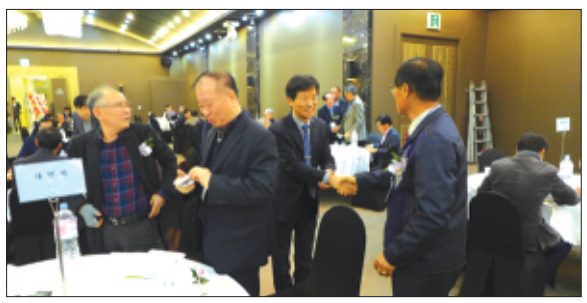
16회동문회(회장 윤석길)는 3월 8일 유성탐라돌구이식당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박대용 차기 총동문회장 후보 추대식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박대용 16회 동문이 3월 22일 열리는 제34회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으로 선출하기에 앞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16회 동기들이 주선한 것이다.

윤석길 16회동문회장은 "몇 년 전부터 16회에서 총동문회장을 맡으려고 준비하였고 16회동문회는 30명 정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박대용 총동문회장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며 "정기총회 때에도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여 기운을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용 총동문회장후보는 "다소 부담이 가지만 친구들이 이처럼 힘을 보태주니 용기가 난다"며 "앞으로 동문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재밌는 총동문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16회 동문들은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총동문회장직을 잘 수행하여 후배들에게 멋지게 이어주자"며 "정기총회 때 많이 참석하자"고 다짐했다.

– 김희곤 편집위원(16회) –

“한번 충기인은 영원한 충기인…총동문회 만세”


1회 선배님들과 교장선생님

김종천 22회동문회장(대전시의회 의장) 인사

국민의례

참석한 동문과 내빈들

한흥교 사무총장 내빈과 동문소개

최경일 동문에게 감사패

안영호 동문에게 표창패

박종호 동문에게 표창패

임세환 회장 총회 주재

이종업 감사의 감사보고

김월배 임시의장 임원선출

24회 졸업30주년행사추진위원장 인사

총동문회기 이양

임세환 회장에게 감사패

신구회장 부부에게 선물과 꽃다발

16회 동문들

24회 동문들

김창국 인천동문회장과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

경석현 30회동문회장 건배사

이장수 자문위원 건배사

총회 마치고 환담

“한국 가봐야 할 관광지1위 문경새재에서 동문 화합 다진다”

제9회 충기인 한마음등반대회 5월 18일(토요일) 문경새재 둘레길 사전 답사

문경새재는 한국인이 가봐야 할 명소 1위로 꼽힐 정도로 수려하다.

문경새재 둘레길은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가장 큰 길이었다.

모교 총동문회 3만3천 동문의 단합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제9회 충기인 한마음 등반대회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 문경새재 둘레길’에서 5월 18일(토요일) 열린다. 권오진 총동문회 사업국장과 김정규 충기산악회 총무가 3월23일 시간을 내어 현지를 답사했다.

〈편집자 주〉

먼 옛날,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선비들이 넘어 다녔던 흙길 ‘문경새재’ 둘레 길은 참으로 경치가 좋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문경새재는 조선 태종 때 이후로 500여 년 동안 한양과 영남을 잇는 번듯한 길이었다.

문경새재의 새재는 ‘새(鳥)도 날아서 가기 힘든 고개‘ ‘억새(草)가 우거진 고개‘ ‘하늘재와 이우릿재 사이(間)의 고개‘ 등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 험준한 흙길로 이뤄진 옛 고개는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옛길로 각광받으며 고즈넉한 걷기 여행의 매력을 선사한다. 옛길 구간은 총 9㎞. 1관문인 주흘관을 시작으로 조령관, 조곡관을 거쳐 옥을 씻을 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수옥폭포까지 이어진다.

백두대간 조령산을 넘는 이 재는 보부상들과 궁중 진상품이 넘던 물산 교류길이었고, 학문이 소통하던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상 요충지이기도 했다. 당시 한양에서 동래까지 가는 고개는 추풍령과 문경새재, 죽령이 있었으나 문경새재가 열나흘 길로 가장 빨라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애용했다.

특히 과거시험 치는 선비들이 유독 이 길을 고집했는데, 당시 선비들 사이에 추풍령은 떨어지고, 죽령은 대나무처럼 미끄러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 문경새재를 택했다고 한다.

제1관문(주흘관) 근처에는 KBS 사극 드라마 세트장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 황궁, 저택 등을 비롯해 조선시대, 고려시대 등 건축물을 엿볼 수 있다. 제1관문 안쪽 새재옛길 입구에 들어선 ‘옛길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길 박물관으로, 옛길과 관련된 흥미로운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다.

문경새재 제1관문인 주흘문.

제2관문은 조곡관으로, 제3관문인 조령관(鳥嶺關)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고즈넉한 정취를 풍긴다. 2구간에서는 조선시대 이 길을 넘나들던 선현들이 지은 한시들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김종직은 “회계로 인끈을 속에 품고 돌아가는 길/시냇물 속에는 남은 단풍 뒹굴고 있네”라는 시를 남겼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문경새재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문경새재 ‘아리랑비’를 지나 한참을 오르면 과거 길에 나선 선비들이 장원급제를 원했던 책바위를 만날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해마다 입시철이면 학부모들이 찾아와 자녀들 합격을 기원한다.

제3관문인 조령관은 충청북도와 도계를 이루는 곳으로 이곳을 기점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한강과 낙동강으로 각각 제 갈 길을 가게 된다.

새재 정상인 조령관에 올라서면 백두대간 명산 주흘산과 조령산이 좌우로 굽어보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충기인 한마음등반대회에 동참하여 따뜻한 봄날 시간을 내어 가족과 친구들과 가장 아름다운 문경새재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보자.

– 권오진, 김정규 동문 취재 –

“십시일반 6년째 어려운 이웃에 정나눠”

14회동문회 봉사활동 대전지역 독거노인 방문

14회동문회(회장 강신열)는 3월16일 독거노인들의 사랑방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14회 동문들은 토요일인 이날 정부지원 일체 없이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대전시 부사동 사랑방 1호, 2호와 옥계동 사랑방 3호를 방문하여 각 호에 필요한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전기 후라이팬 및 쌀, 라면, 생수 등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고 50여 분의 어르신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삶에 활력을 드리고 위로해 드렸다.

14회 동문회는 지난 2014년 1월 충북 청원군 소재 소망의집에 첫 봉사활동을 한 이후 계속 6년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많은 동문들이 모여서 하던 예년 방식과 방법을 달리하여 일부 물품만 기증받고 기존의 잔여 봉사활동 기금을 운용하여 대표로 회장 강신열, 고문 진인기, 감사 박찬호, 재무국장 이동원, 졸업 4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장 백채준 동문이 대표로 참석하여 나누는 기쁨과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봉사활동의 뿌듯함을 느낀 하루였다.

14회 동문들이 6년째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이동원 14회동문회 재무국장 –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생 최고의 동반자가 됐어요”

2019년 제41회 대한민국난대전에서 대상 받은 성시만(27회) 동문

1. 성시만 동문이 자신의 농장에서 대한민국난대전 상장을 들고 있다.

2. 2019년 제41회대한민국난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복륜복색화 '홍륜'춘란.

“월드컵 축구대회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2002년에 선배의 권유로 시작한 한국춘란 기르기가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동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후 인생이모작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올해 3월에 경주에서 열린 2019년 제41회 대한민국난대전에서 한국춘란 복륜복색화 ‘홍륜’를 출품하여 최고상인 대상(국회의장상)을 차지한 성시만(27회) 동문을 유성 구암동에 있는 난 농장에서 만났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취미를 갖는 것은 긴장 속에서 살아야하는 현대인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수많은 취미 중에 한국 토종 자생란인 풍란을 기르는 것도 있다. 식물을 직접 기르는 것은 정서함양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면 건조한 실내 습도도 개선시켜줄 수 있다. 특히 난(蘭)은 금란지교(金蘭之交)에서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其臭如蘭)고 한 의미가 말하듯 예(禮)와 기품(氣品)이 들어있어 세상의 평판도 좋다. 풍란을 기른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보람도 있는 훌륭한 취미라 할 수 있다. 잘 기른 한국 춘란은 한 분에 1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니 놀랄 일이다.

한국춘란의 명장으로 거듭난 성시만 동문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에서 부친 성성제씨와 모친 김영숙 여사의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 대전으로 이사 온 성 동문은 대화초등학교와 오정중을 나와 충남기계공고 배관용접과에 입학했다. 모교를 졸업하고 자재유통회사에 입사했다가, 신탄진에 있는 대한이연 회사로 이직하여 4년 간 다니며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았다. 성 동문은 1995년 회사 선배들과 외식프렌차이즈 식품유통업 회사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면서도 애란인들과 함께 유성 공동 농장에서 명품 한국 춘란 농사를 짓고 있는 성 동문은 한국 춘란의 밝은 미래에 대해 소감을 토로했다. 17년 간 정성을 기울인 결과 성시만 동문의 춘란은 2017년, 2018년, 2019년 대한민국자생란협회 대전시지회주최 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데 이어, 마침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으로써 일약 전국 애란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 동문은 “고령화시대에 정년하고 나서 인생이모작으로 난 기르기를 권유하고 싶다”며 “경북에 계신 70대 노인은 하반신 불구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춘란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활기있게 사신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우리 충기인 들 중에도 난 기르기의 명인들과 동호인들이 많다. 1982년에 대한민국자생란협회를 창립한 류일녕 동문(9회)은 현재 명예 이사장으로 역시 춘란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류일녕 동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국춘란이 4천억원 어치가 거래되고 중국과 일본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춘란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성시만 동문은 “풍란은 기르는 사람의 정성을 먹고 산다”며 “정년 후 죽을 때까지 한국춘란에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 동문은 “27회 동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졸업 30주년행사 등을 대비해 동문회 조직 구성과 모임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성 동문의 취재 날에는 평일 바쁜 일상에서도 류일녕 대한민국자생란협회 명예회장(9회)과 정성태 변리사(13회),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16회)이 동참하여 대상을 축하해주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선배님! 편안하게 영면하시옵소서!”

충기총동문회 산 역사 박희목 자문위원 3월 26일 별세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던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의 산 역사 박희목 선배님(4회. 총동문회 자문위원)이 3월 26일 오전 10시 36분 충남대병원에서 영면 하셨다.

박희목 자문위원은 지난해 3월에 열린 33회 정기총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원만하게 끌어가는 등 총동문회의 시작부터 동문 모임과 동문들의 일상사에 참석한 단골이셨다. 임용호 총동문회장(8, 9, 10대 회장. 4회) 때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맡아 동문회 조직을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평소에 사람을 좋아해 후배들과 자주 어울렸던 박 자문위원은 술을 많이 마셔 수술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어 지인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봄부터 조금씩 몸의 일부가 아픈데도 그냥 지내다가 추석이 지나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아 그동안 투병생활을 해왔다. 특히 박희목 자문위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46차 전기과 정기총회에서 몸이 상당히 아픈 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끝까지 지켜 후배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병원과 집을 오가며 투병 중이던 박 자문위원은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3월 25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

김희곤 동문은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메시지로 ‘희곤이, 흥교 등 후배들이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와 급히 충남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다”며 슬퍼했다. 박희목 자문위원은 대전을지병원장례식장에서 3월 28일 발인하여 충북 옥천군 청성면 합금리 선산에 안장됐다. 선배님, 저 세상에서 재밌게 지내다가 술과 사람이 그립거든 다시 내려오셔서 술 한잔 하시고 가시옵소서! 선배님의 웃음소리와 환한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전기과 정기총회 때 박희목 자문위원.

지난해 3월 총동문정기총회 참석.

전기과 정기총회에서의 담소 모습.

“꿈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모두 인재 되도록 지원”

황의만 신임 충남기계공고 교장 취임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총동문회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자로 직업교육의 명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에 부임한 황의만입니다.

최근 특성화고등학교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치르는 날, 무대 위에서 동문 선배들이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 축하해주는 신입생들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했고 대견스러워했으며 입학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입학식을 보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명문이 된 이유를 알았고, 명문고로써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3년 동안 만들어가는 꿈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3년 후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모두가 빛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전 교직원과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악화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를 염려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학생들이 더욱 빛을 발해서 모두가 빛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4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장 황 의 만

2019학년도 입학식 거행 모교 후배 302명 입학 “많이 줄었다”

총동문회 장학금 7명, 청암장학금 10명, 기룡전기장학금 10명에게 전달

2019학년도 모교 신입생 입학식이 3월 4일 오후 2시 302명의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총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입학허가 선언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장학금은 매년 총동문회에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총동문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임세환 총동문회장을 대신하여 이우정 고문이 1학년 학생 7명(주재홍, 송지헌, 강형관, 신동희, 현승민, 장덕희, 정준환)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청암장학회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행사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2학년 학생 10명(김종원, 이양운, 이동환, 박형인, 임유빈, 김유찬, 황오성, 고기현, 조원민, 심재현)에게 정해준 청암사장이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이 학생들은 50만원씩 총 4차례 수급하여 200만원의 장학금과 여름방학 기간에 해외연수도 제공받는다. 또한 ㈜기룡전기 이중선(모교 36회) 사장이 10명(1학년 서승희, 이준, 이우진, 조윤도, 2학년 김태욱, 김은중, 심승우, 3학년 임현우, 김민용, 임준묵)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씩 기룡전기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학교장 축사에서 황의만 교장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본교는 50년의 오랜 전통이 있는 학교로 중부권 최고의 특성화고이며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배출된 학교로서 충기 동문으로 자부심을 갖길 바라며, 신입생들도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였겠지만 멋진 미래를 상상하며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더욱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찾아 노력하는 성숙한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알차고 의미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세환 총동문회장은 이우정 고문이 대독한 축사에서 “요즘은 학력중심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인만큼 실력을 갖추길 바라며,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또한 힘찬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충기인으로의 나래를 펴고 당당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병춘 편집위원(11회. 모교 교사) –

“선배님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2019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시행

모교에서는 2019학년도 3학년 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실하고 실력이 있는 후배들에게 취업의 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문은 이 사업에 참여하시어 후배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길 부탁드린다.

1.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란? : 취업약정 3자 협약(기업-학교-학생・학부모)을 통해 현장중심의 NCS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한 학생을 동문기업으로 취업 연계하여 기업과 학생이 만족하는 인력채용 시스템 구축

2. 사업 운영 절차

참여기업	산학인 시스템에 사업참여신청/승인	➡	면접 실시 및 결과 발표	➡	현장견학/체험일정 안내	➡	3 자 협약 체결 (5월)
학생	취업맞춤반 참여		기업체 선정 면접 서류 제출		채용연계형 현장 견학 / 체험		
학교	사업 안내 및 학생 선발		기업인력매칭 면접서류 송부		견학/체험일정 조정		
➡	직무분석 참여/사업주 훈련비 지급 (교육훈련비, 훈련수당, 식비)	➡	채용형현장실습 (10월 20일~)	➡	훈련비 환급신청 (채용 후 3년 이내)	➡	졸업 재직 병역 특례 후 학습
	위탁교육 참여 (130시간)		근로계약서		훈련수당, 식비수령		
	직무분석/교재개발/시간표 작성/사업주 훈련비 수령		파견		훈련비 환급 서류 제공		

3. 채용협약기업 우대 혜택

대상: 공업분야(제조업,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이며,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 ◆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 ◆ 현장실습 우수기업 정부포상 및 홍보 / 입찰가점 부여
-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세액 공제
- ◆ 마일리지 적립하여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 은행의 기업 신용도 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2018.2. 관계부처 합동 자료)

4.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

당해연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차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6월)
참여기업 : 고용 중이거나 고용예정인 참여 학생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19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
병무청 :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5. 취업의뢰 신청방법 (☎ 042-580-2136, 2138)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http://chungnam-mhhs.djsch.kr)

→취업정보센터 →기업체코너(현장실습생 배정 요청)

수입 현황

기간 : 2019년 2월 27일 ~ 2019년 3월 26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방	1	문상복	20,000	기	12	박용진	20,000
광	1	윤석원	20,000	기	12	이기복	20,000
광	1	이기선	20,000	전	12	이병호	20,000
자	1	이창우	20,000	기	12	최병필	20,000
자	1	한훈동	20,000	기	13	김태근	20,000
광	3	김유원	50,000	기	13	홍구표	20,000
전	3	박광수	20,000	기	14	강철현	20,000
광	3	송영돈	20,000	기	14	김교신	100,000
자	3	이기복	30,000	기	14	문명호	2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4	방명철	20,000
전	3	홍명표	20,000	기	14	송장섭	20,000
광	4	지복만	20,000	기	14	우상태	50,000
전	4	한봉석	20,000	기	14	이상호	20,000
방	5	민경식	20,000	기	14	전병민	100,000
자	5	박돈서	20,000	기	14	진인기	20,000
방	6	김상운	50,000	기	15	김정석	50,000
광	7	윤제복	20,000	기	15	박 현	20,000
전	7	이웅재	20,000	기	15	정헌경	20,000
자	7	조봉호	20,000	전	16	권오준	100,000
전	8	고달수	20,000	기	16	신영태	20,000
자	8	복영규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전	8	손영남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전	8	신의중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화	8	이장수	100,000	전	16	장보환	20,000
광	8	진송식	20,000	기	19	김태훈	20,000
기	8	최용신	20,000	기	19	박문수	20,000
자	8	황병식	20,000	기	20	강인용	20,000
화	9	류일녕	20,000	기	20	박경하	50,000
자	9	서정식	20,000	기	21	박원종	20,000
전	9	이도한	20,000	기	22	이희국	100,000
자	9	이병길	20,000	기	22	정기채	100,000
전	10	김생환	20,000	기	22	정은영	20,000
전	10	서호석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자	10	이재성	100,000	설비	51	한찬혁	20,000
광	10	정진승	20,000	전	52	김광민	20,000
화	10	최정관	20,000			무기명	20,000
광	11	김종호	20,000				
전	11	송근희	20,000				
기	12	고인환	20,000				
기	12	김대근	20,000				
기	12	김대환	20,000				
전	12	김종하	100,000				
기	12	라기원	200,000				

회보 광고비

기	14	이용선	50,000
화	15	정영환	5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제 34회 정기총회

방	1	백운길	100,000	광	12	송진만	100,000	기	16	윤석길	100,000
자	1	송주영	50,000	기	12	임정규	100,000	전	16	이상돈	50,000
상	1	오응수	100,000	기	12	전종현	1,000,000	기	16	이영진	100,000
광	3	서한수	100,000	기	12	정찬목	50,000	기	16	이재근	50,000
전	3	이용주	100,000	전	12	한영식	100,000	금	16	이재열	100,000
전	3	이우정	200,000	기	13	강현용	30,000	기	16	이천구	50,000
전	3	이종욱	100,000	기	13	송재길	100,000	기	16	장병훈	50,000
방	5	민경식	50,000	기	13	이상헌	50,000	기	16	조영호	50,000
방	5	윤대진	200,000	전	13	정성태	100,000	기	16	한석동	50,000
전	6	윤여봉	50,000	기	14	강신열	100,000	전	16	한흥교	100,000
광	8	김월배	100,000	화	14	윤재중	100,000	기	17	이윤구	50,000
화	8	이장수	100,000	기	14	이종업	50,000	기	17	이종우	50,000
전	8	이재범	50,000	기	14	임화섭	200,000	기	17	장세정	50,000
전	8	이정식	100,000	기	15	노용재	50,000	기	17	정관성	50,000
전	8	임헌표	100,000	기	16	강범석	50,000	기	18	김창국	100,000
전	9	김기수	300,000	기	16	구자균	100,000	기	19	임운택	50,000
전	9	임세환 (전 총동문회장)	200,000	기	16	김근진	50,000	기	21	박원종	50,000
				기	16	김문환	50,000	전	21	오주철	50,000
전	9	최경일	200,000	전	16	김병석	50,000	기	21	최동준	200,000
전	9	최봉구	50,000	기	16	김석래	100,000	전	23	최상현	50,000
전	10	김생환	100,000	전	16	김희곤	100,000	기	23	하헌영	50,000
방	10	김영갑	50,000	기	16	남기섭	50,000	전	24	강노산	50,000
기	10	김용남	100,000	기	16	박 철	50,000	배	24	김민교	50,000
광	10	안주현	100,000	기	16	박대용 (총동문회장)	3,000,000	기	24	김형찬	100,000
전	10	이병렬	50,000					기	24	박종호	50,000
광	10	이병화	50,000	기	16	박창호	50,000	기	24	안영호	50,000
기	10	이완구	100,000	기	16	박태집	100,000	기	25	박선규	50,000
화	11	김연승	100,000	기	16	송상호	50,000	기	31	권오진	100,000
기	11	송석호	100,000	기	16	양재운	50,000	전	34	공대성	50,000
전	11	오연진	100,000	금	16	여헌구	50,000	기	35	김정규	50,000
전	11	이상호	50,000	배	16	오한선	50,000	전	36	이중선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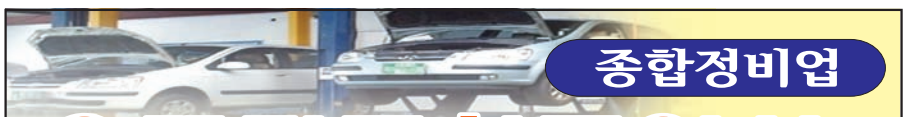
단체	구연회(9회동문회)	300,000
	12회 동문회	300,000
	일육회동문회	300,000
	17회 동문회	300,000
	22회 동문회	300,000
	24회 동문회	300,000
	삼공회(30회동문회)	200,000
	공사모 동문회	300,000
	설송마라톤 동문회	100,000
	전기과 동문회	300,000
	충기FC	200,000
	충전회	200,000

회보 광고비

기	25	박선규	50,000
업체		크라운뷔페	70,000

제 34회 정기총회 화환내역

12회 동문회
16회 동문회
일육회 동문회
24회 동문회
전기과 동문회
인천 동문회
충남기계공고 산악회
변호사 백홍기(16회)
제주미르빌펜션앤리조트 대표 조성민(16회)
하얀꽃집 이재열 대표(16회)
충남기계공고 교장 황의만
충남기계공고 운영위원회장 한기흥
친구 한상훈
㈜필립 대표이사 박재성
태아정밀 대표 박현길
계북초등학교 12회 동창들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羊画里 양화리
♦양갈비코스 28, 000원
(양갈비200g + 찹쌀탕수육 + 양고기전골)
♦단체모임, 가족모임환영, 전용주차장완비♦
010-6420-8885 대표 전 재 홍(15회)
봉명점 : 대전 유성구 봉명동 675-7 T. 824-8886
☞ 유성지구대 뒤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YB 영빈테크
국내최초 곡면 날 스텐작두
약초 채취용 곡괭이 대표 : 정용원(15회)
정밀금형, 설계제작, JIG제작, 특허개발, 약초곡괭이, 스텐작두
검색 : 다음블로그 영빈의 작은공간
구입. 제작문의 : 010-5408-98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쓰로 91 (호계동 한국프라자 3층 301호)
E-mail : jyw0021@hanmail.net FAX : 031)427-9767

황 학 순(13회) 010-3441-8886
☎ 042) 284-8880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24-1번지(식장산)

ZIN solar 지인솔라에너지
Z-IN Solar Energe

대표 우진권(33회)
010. 8315. 0128
Tel 1522-9745
zinsolar@naver.com
경북 구미시 1공단로6길 53-14
태양광발전사업[RPS] 전문기업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
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 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용프로 골프
KGCFA 사단법인 한국골프클럽피팅협회 Korea Golf Club Fitting Association
대표 임 태 수 (6회)
지정 피팅골프샵 010-5401-348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8-18
Tel. 042-823-9044 Fax. 823-9055

7080 쉘부르
프리랜서

대표 우 일 제 (14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22(계룡사옥 정문 맞은편)
H.P : 010-9413-7882

CHUNGHO 청호나이스
www.chungho.co.kr
기술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청호나이스 25년 기술력의 결정체 휘카페 - IV 엣지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18년 연속 수상
★세계 최고 수준의 다우케미컬 및 칼곤사의 필터 재료사용
대전유성지사 박 선 규 (25회)
010-3882-5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5, 5층(지족동)

법무사 / Beommusa Lawyer
정 영 환 (15회)
20년간 쌓은 노하우로, 최선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분야 ●신청분야 ●형사소송분야
●법원에 관련된 모든일 ●등기분야
●개인파산, 회생 ●집행 및 경매분야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301호(둔산동, 청남빌딩)
전 화 : 042-472-8061 팩 스 : (042) 472-5780
휴대폰 : 010-5487-8060
이메일 : jungyh9@naver.com

우명동 참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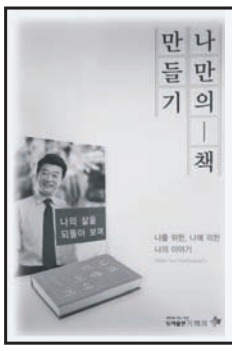
대표 박철규(16회)
대전광역시 서구 우명길 89 (우명동)
TEL. (042) 581-1837
H.P. 010-5404-1837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CUBEIT (주)큐브아이티
서대산추모공원 엔딩라이프
도서출판 지혜의 샘
지사장 박 종화(10회)
상담문의 ☎ 010-5643-2533
☎ 010-5606-0087
※영업사원 모집: 높은 수당 지급
봉안당 가격으로 장례 행사 무료!
1. 봉안당 가격 하나로 장례행사 무료!
(업계 최초 무이자 할부 X 300万 상조상품 무료)
2. "유택(고인의 집) 준비는 필수!"
(경기도 납골당 80% 이상 분양, 납골당 선호도 90%)
3.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갈 곳 없다!
4. 초 고령화 ➡ 사망인구 급 증가!
5. 또 다른 재테크 상품 ➡ "묘지 테크"
6. 가지고 만 있어도 돈이 됩니다
(서대산 추모공원 10년 전 개인단 50만원 ▶ 현재 450만원/
경기도 000 추모관 10년 전 개인단 190만원 ▶ 현재 700~800만원)

CUBEIT (주)큐브아이티
서대산추모공원 엔딩라이프
도서출판 지혜의 샘
지사장 박 종화(10회)
상담문의 심 청 운
☎ 010-5643-2533
1. 봉안당 가격으로 300만원 장례행사 무료서비스 (부가세 및 추가 비용 별도)
2. 시대적 변화
① 화장률 증가 ② 사망률 증가
③ 산소, 문중 묘 정리 급속화
④ 봉안시설 증축 허가 어렵다.
⑤ 봉안당 분양가 오른다(리스크 없는 재테크)
3. 2001년 법률개정
매장위주 장사문화 ➡ 화장과 봉안 중심 확산!
※업계 최초【봉안당 무이자 할부+장례행사 무료 서비스】



CUBEIT (주)큐브아이티
도서출판 지혜의 샘
지사장 박 종화(10회)
상담문의 최 우 준
☎ 010-7634-5007
【특별한 패키지 상품】
▪ 100부 발행 500만원
▪ 300부 발행 800만원
▪ 500부 발행 1,000만원
▪ 1,000부 발행 1,200만원
▪ 1,500부 발행 1,500만원
※국내 최초 런칭 상품